

## 결핵상담실

상담. 김은배(중앙지회 복지지원원 원장)

**Q** 제가 결핵성능막염 판정을 받고 11년 2월 6일부터 약을 복용하였습니다. 약 한 달쯤 먹고 간 수치가 높아져 현재 약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, 무릎과 걸을 때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. 약으로 인해 관절염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던데, 어떻게 해야 좀 호전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현재 간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다른 약도 못 먹습니다. 혹시 무릎이나 발바닥에 좋은 음식이나 치료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.

**A** 초치료시 항결핵 약물치료 도중 피라진아미드(PZA)에 의해 혈중 요산 수치가 상승하여 관절 통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심하면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용량을 감량하든지 또는 처방변경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계속 통증이 심하시면 물리치료에 관하여 문의해 보시고, 진통, 소염제 등으로도 완화할 수 있으나 현재 간염이 있으므로 약보다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**Q** 출산 후 두 달 뒤쯤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. 6개월 약물 치료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, 자랑 매일같이 붙어있던 우리 아이가 걱정이 되어 결핵반응검사를 했더니 15mm가 나왔어요. X선이나 피검사는 정상이구요. 의사선생님은 BCG 영향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엔 크기가 크다면서 당장 약물치료 들어가야 되고 9개월 동안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. 저는 괜찮은데 이제 갓 백일 된 아이에게 저 독한 약을 매일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눈물만 나오네요. 아이에게 처방된 약은 아이나랑 리팜핀 이렇게 두 가지인데, 두 가지 약을 먹는 게 괜찮을까요? 자칫 아이 입맛이 떨어지거나 성장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.

**A** 폐결핵 환자와 접촉한 아이가 폐부 결핵반응 검사에서 비교적 큰 양성으로 나타났다면, 결핵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. 결핵 예방치료로는 일반적으로 아이나 한 가지만 먹어도 되는데 이 경우 치료기간은 통상 9개월입니다. 아이나로 하는 예방치료는 대개 큰 부작용은 없으나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다른 문제가 없으면 결핵이나 발육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**Q** 결핵균 검사결과 객담 도말에서는 양성이 나오고, 객담 배양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요?

**A** 폐결핵 진단 시 객담 도말양성 배양음성인 경우는 부적절한 객담채취, 도말이나 배양 시 오염이나 과정상의 문제, 부적합한 배지 등 기술적인 문제로도 간혹 초래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치료 도중에는 적절한 항결핵 약물치료로 균이 생화학적으로 손상을 입었거나 살지 못하여 배지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도말양성 배양음성이면서 임상증상이나 흉부 X-선 등 임상소견 상 악화되지 않고 경과가 좋다면 치유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. 향후 정기적으로 객담 검사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.

**Q** 요즘 들어 피곤하고 몸무게도 빠지고 목 부분에 뭔가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 의심된다고 합니다. 폐결핵은 자주 들어봤지만 임파선 결핵은 생소한데, 왜 걸리는 건가요? 엑스레이로 확진검사가 되는지, 아니라면 확진검사는 뭘로 하는지, 그리고 치료방법과 치료 경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.

**A** 임파절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임파절에 결핵병변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주로 경부(목)나 겨드랑이 부위에 잘 생깁니다. 단순 X-선 검사로는 진단하기 어렵고 경부 초음파검사나 CT, 조직검사 등으로써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치료는 폐결핵과 마찬가지로 항결핵 약물치료를 하게 되며, 치료 도중에 종종 임파절이 종창되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농의 배액 및 상처 치료를 장기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치료만으로 호전이 잘 안되거나 타 질환이 의심될 경우 등은 수술(절제)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. †